

지역 소식통

부안군,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 예비사업 공모 선정

부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2차 공모에 최종선정 되어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다 고 밝혔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해 소규모 집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도시재생 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판인 사업이다.

부안군은 줄포면 줄포리 408-1번지 일대(160,000㎡)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정원화사업 골목길러리 조성, 지역상생 문화축제 및 장터운영, 거점공간 스튜디오 조성 등을 담아 N포의 너머, 새로운 상상을 '씩' 띄우는 도시출발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계획안으로 만들어 공모에 최종 선정 됐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군민 안전 스마트 가로등 설치

고창군이 야간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안전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우범지역 18개소에 여성안심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까지 안전취약지역 85개소에 1억3000여 만원을 들여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했다.

올해도 고창경찰서와 함께 인적이 드물고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 18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블랙박스 결합된 스마트가로등은 녹화된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야간 범죄예방과 사건 사고 해결에 큰 효과가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야간에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성안심 스마트가로등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치매 걱정 없는 우리 마을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농소동 농소주공아파트 '2022년 치매안심마을' 지정

정읍시치매안심센터가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농소동 농소주공아파트를 2022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이 원래 살던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 올바른 인식 형성으로 지역사회에 치매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치매안심센터는 농소주공아파트를 치매안심마을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동사무소, 농소파출소, 정일중학교, 정읍소방서 등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판식을 진행하는 등 치매안심마을 운영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60세 이상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제공, 치매조기검진, 인식개선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치매환자 인지훈련 프로그램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지역사회 내 총출한 치매안심마을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가맹점 지정과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치매를 바로 알고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치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예방·관리와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마을 안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보내고 치매가 없는 주민들도 환자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해 농소동 목련아파트 1단지, 2단지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유진섭 시장, 정읍시 시목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역 발전과 기독교 복음화 위해 노력한 공로 인정

유진섭 시장은 19일 정읍시 시목협의회(회장 김재조)로부터 시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정읍시 시목협의회 김재조 회장을 비롯한 시목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정읍시청을 방문해 유진섭 시장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유진섭 시장은 민선 7기 재직기간 동안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정읍시



기독교교계의 복음화를 위한 시목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김재조 회장은 "시장 발전과 시 현

안 사업을 위해, 시목협의회와 정읍시 지역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 준 정읍시에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한 것뿐인데 감사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종교계가 더욱 화합해 시장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시목협의회는 2017년부터 매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심덕섭 후보 허위신고·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덕섭 후보는 더 이상 저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유기상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날 18일 밤 심덕섭 후보측 인사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종결된 일을 입수수책이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개탄을 금할 수 없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하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성명불상 유령폰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자, 살포,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왜곡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행

위도 모자라 금도를 넘는 가장 악랄한 선거 방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유기상을 돈선거로 매도하는 것은 군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고, 군민들은 누가 돈선거를 잘 할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기에, 정책과 인물에 대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조건없는 방송사 토론회나 전화 인터뷰 등에 무서워하며 도망가지 말고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읍선거에 출마한 이학수 시장 후보와 도·시의원 후보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11시 정읍 성림프라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당 압승만이 정읍발전을"

민주당 이학수 시장 후보와 도·시의원 후보 출정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읍선거에 출마한 이학수 시장 후보와 도·시의원 후보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11시 정읍 성림프라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가 주관하여 국민의례, 시장 및 도·시의원 후보 소개, 필승다짐 구호 제창과 연설의 순서로 진행된 출정식에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원팀의 승리로 정읍 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정읍의 어려움을 뚫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시장, 도·시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정읍의 발전을 이끌도

록 시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승리로 밀어달라"고 호소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 과정을 거친 후보들이 정읍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심을 밀어달라"면서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한 표를 당부했다.

또 찬조연설에 나선 강광 전 시장도 "민주당의 압승만이 정읍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역설했고, 시의원 후보들은 출정식의 구호를 연호하며 스스로 승리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출정식에 이어 이학수 후보는 하루종일 정읍 시내를 돌며 유세전을 펼쳤고, 오후 5시 다시 한번 도·시의원들과 명동의류 사거리에서 합동유세를 갖고, 6시 10분 수성주공 앞 유세로 첫날 일정을 이어갔다.

/정읍=김대환기자

민주당 부안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 선거대책위원회는 19일 부안터미널 사거리에서 6·1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와 김정기 전북도의원 부안선거 후보,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과 부안군의회 의원, 민주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병학 전 부안군수와 임기태 전 부안군의회 의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에 김선근 전 부안군의회 의장과

장석종 전의장 오세용 전 의장 및 김상근 부안군수 예비후보자가 공동선대위원장직에 합류해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 할 방침이다.

그리고 출정식에서는 부안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임원과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열려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부안=김석진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